

언약제를 마음에 모신 다윗

사무엘하 6:12-23, 마태복음 11:16-19

최정웅 목사님

요약

서론 :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사랑하다가 축복을 받은 인물이 워너메이커였고 다윗이었다.

- 1. 언약제의 의미 : 여호와께서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곧 그리스도의 상징 - 언약제를 모시고 따라갈 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다.
- 2. 언약제의 의미를 놓친 이스라엘 : 복음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
- 3. 언약제를 마음에 품은 다윗 :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약제를 사랑하고, 언약제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춤을 추며 가장 기뻐했다.

결론 : 참된 기쁨과 참된 슬픔을 이해해야 한다. 언약적인 한을 참된 슬픔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약제를 품는 예배를 참된 기쁨으로 누려라.

“주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왔사오니,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이 마음 속 깊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역사 속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부족한 종이 있사오니,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약제를 마음에 모신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많은 기업가들이 등장했다. 철도왕 밴더빌트, 철강왕 카네기, 자동차왕 헨리 포드, 금융왕 모건, 석유왕 록펠러 같은 사람들이다. 그 중에서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메이커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마음에 각인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었다. 어린 소년이 1년 반을 벽돌공장에 다니면서 돈을 모아서 성경책을 사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직접 벽돌을 나를 만큼 성경과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어여뻐 보시고 축복하셔서, 마침내 워너메이커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백화점왕이 되었다. 우리 참사랑 모든 가족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특히 우리 램넛들 중에서 이런 인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내 친구가 양복을 입고 와서는, 양복점에서 대접을 잘 해 준다고 했다. 고급 옷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었다. 양복점에 가지만 사 준다는 것이다. 시골 교회인데 그랬다. ‘사업가가 있나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옷이 별로 필요없는 사람이다. 10년 된 양복도 입고 있다. 상관은 없지만, 록펠러, 워너메이커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를 하고 램넛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힘을 내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했다가 축복받은 인물이 성경 속에 나오는데, 그 인물이 오늘 주인공인 다윗이다. 헌당을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목상하는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어 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 오늘 다윗의 언약제를 품는 마음을 두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1. 언약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 (1) 첫 번째는 언약제의 의미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말한다. 혈통 족속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는 증거가 바로 언약제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가 언약제다. 그래서 언약제를 증거케라고도 한다.
- (2) 이 언약제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다.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만나

를 담은 항아리, 씩이 난 아론의 지팡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다. 돌판은 언약의 말씀이고 만나는 생명의 떡이었으며 지팡이에 돌아난 짝은 막을 수 없는 생명,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였다.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물건들이다. 그래서 언약제를 모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모시는 것이다. 이 언약제를 둔 곳이 바로 성막이고, 성막을 중심으로 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서 진을 쳤던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이다. 성막에서 동서남북으로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거기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리가 안식일 거리가 되었다. 그게 약 2km 정도 된다. 2km 반경으로 동서남북 텐트를 치고 200만 명이 이동했던 것이다.

(3) 멈출 때는 언약제를 모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고, 움직일 때는 언약제를 메고 제사장들이 갈 때 그 뒤를 따라서 움직였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제를 메고 갈 때 이스라엘이 그 뒤를 쫓아갔는데, 여러 왕들과 대적들이 무너졌다. 요단이 갈라졌고 여러고도 무너졌다. 그들에게는 크게 무장한 군인도 없었고 중화기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모시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서 저들을 이기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은혜에서 기인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신앙생활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돈으로 받는 것도 아니다. 지식으로 받는 것도 아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아야 구원을 얻겠는가. 그런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인생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앞에 대적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과 개인과 학업과 산업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리고를 돌고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돌만 던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비박산 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갑자기 녹아서 내다보지도 못했다. 성벽도 바위 아니라 안으로 무너져서 그들은 망해 버렸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것이 언약제다. 언약제를 모시는 것, 주님을 모시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다. ‘네 몸이 성전인 것과 네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네 몸이 바로 성전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다.

2.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제의 영적인 비밀을 놓쳐 버렸다.

두 번째 말씀은, 그런데 이 언약제의 영적인 비밀을 이스라엘이 놓쳐 버린 것이다. 2천 년 교회사 속에서도 교회가 언약을 놓쳤을 때 힘을 잃어버렸고, 사회를 정화하지 못하고 지탄을 받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1) 언약제를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기는 했는데, 그 후대들이 언약제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핵심인 복음의 비밀을 놓쳐 버렸다. 복음의 비밀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 여호와의 생명, 여호와의 능력인 언약제를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상징물, 우상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냥 부적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복을 주는 물건으로 생각하고 보물로 생각하고 우상화시켜 버렸다.

(2) 언약은 완전히 놓치고, 교회가 본질과 사명을 놓쳐 버리니까, 전쟁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계속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복음 없는 제사장의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싸우는 중에 불리해지니까, 언약제를 앞세우고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완전히 패하고 언약제까지 빼앗겨 버렸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상에게 영광을 빼앗기는 분이 아니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리품을 가져다가, 언약제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는데, 문을 닫아 잠가 놓고 다음날 와서 열어 보니, 다곤 신의 목이 날아가 버렸다.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 목이 저절로 부러져서 땅에 떨어져 버렸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뿐 아니라, 블레셋에 아예 전염병까지 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치를 챘다. “이 언약제를 계속 여기 두면 우리가 다 죽겠다.” 이렇게 해서 돌려준 것이다. 그래서 언약제가 벤세메스로 갔다가 다시 기럇여아림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

약제가 머무르게 되었다. 이것이 삼상 5~7장의 이야기다.

(3) 이러한 중에 사무엘이 일어나 말씀운동을 하고,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 세워진 사울 임금은 언약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언약계를 내버려 두었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데도,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복만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신다.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그 교회와 개인에게는 어려움이 오게 된다.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다.

3. 다윗은 언약계를 마음 속에 한으로 붙잡았다.

다윗이 왜 시대적인 인물로 쓰임받았는지 아시는가? 이 언약계를 자기 마음 속에 한으로 붙잡았던 당대의 유일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세 번째다.

(1) 다윗은 소년 시절에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잡았다. 이때 사무엘이 다짜고짜 와서 기름 부으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언약계 옆에서 기도하며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사무엘 아닌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왕 열심히 해라' 하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틀림없이 언약을 전달했을 것이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지금 임금은 언약에 관심이 없고, 언약에는 방치되어 있다. 이 시대는 언약을 놓쳐서 계속 제왕이 오고 있는 것이다. 다윗, 너는 이 시대를 살리는 임금이 되어야 한다. 언약계를 마음에 품어라.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메시지로 분명히 전달했을 것이다. 다윗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다(삼상16:13).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는가? 한(恨)이 있었다. 복음을 상실한 시대를 한으로 붙잡고,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언약계를 모실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언약계를 방치한 시대에 대한 한으로 붙잡아졌다. 이것을 반드시 바꾸겠다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다.

(2) 그래서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언약계를 모셔오는 일이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게 신앙이다. 언약계를 오벰에돔의 집에서 모셔오는데, 임금이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했나? 언약계를 메고 오는 사람들의 걸음마다, 다윗은 값진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었다. 내가 어릴 때 결혼식을 떠올려 보면, 신부측 청년들이 신랑 마을로 와서 말한다. "우리 동네의 귀한 처녀를 데리고 가려면 돈을 내놔라." 걸음마다 돈을 내야 하고, 쌀가마니를 내놓으라고도 한다. 그렇게 장난을 치면서 실랑이를 벌인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계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멘 사람이 올 때 계속 제물을 드리면서, 그 법제가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도 환영하고 기뻐했다. 그러면서 춤을 췄던 것이다. 내가 예배학을 가르치는데, 보니까 옛날 예배 순서에는 춤추는 순서가 있었다. '예배하면서 어떻게 춤을 췄을까?' 나는 춤바람이 나서 지하실에 모여서 춤을 추다가 남편에게 머리채를 붙잡혀 끌려가고, 애들 놔두고 도망가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춤은 나쁜 것이구나' 생각했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호텔에서 로비로 나왔더니, 호텔의 사람들이 다 나왔다. 나와서 남편가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데,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돌아다 짝을 바꿨다가 하면서 춤을 추는데, 났을 잃고 봤다. '야, 춤은 아름다운 것이구나. 바람나는 게 아니구나.' 또 한 번은 철원에 수도원이 있어서 갔는데, 저녁예배가 끝난 후였다. 뒤에 순서가 진행되는데, 의자가 없고 마루방이었다. 찬송소리가 열심히 나고 박수 소리가 나기에 들여다 봤더니, 수백 명이 예배당을 둘러서 원을 그리고 서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다. 났을 잃고 봤다. 너무 아름다웠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춤이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싶었다. 내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 그런데 예배학 공부를 해 보니 예배순서에 춤을 췄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처럼 찬양하면서 울동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알 수가 없다. 아무튼 춤을 추는 순서가 있었다. 입을 맞추는 순서도 있었다. 우리는 입을 맞추는 게 이상한 것인데, 그 사람들은 입 맞추는 것이 우리가 약속하는 것과 같은 풍습이니까. 러시아에 가니까 배가 이만큼 나온 사람이 불에 대고 쪽 소리가 나도록 뽀뽀를 하는데, 말은 못했지만 징그러웠다. (웃음) 그게 그 사람들 문화인가보다 싶다. 다윗이 너무 기뻐해서 춤을 추는데, 천을 걸치고 띠를 하면 그게 옷이 된다. 띠가 벗어지면 속이 드러나게 되는데, 다윗이 얼마나 춤을 췄던지 그게 날아가 버렸던 모양이다.

즐겁게 노래하고 나팔을 불고 켈을 메어 오는데 어느 정도 춤을 췄는지, 겹옷이 다 벗어지고 속옷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춤을 췄던 것이다. 다윗처럼 우리 예배가 힘을 다해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한다.

(3) 한 마디로 말해서 언약계를 사랑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다. 21절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렇게 말한다. 언약계를 다윗은 다윗성에 세운 성막에 모셨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모셨다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축원한다. 크리스천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로 꼭 찬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흥분이 되고, 감사하고,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예배, 준비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런 예배를 1년에 몇 번이나 드리는가? 한 번도 없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오늘 결론은 언약적인 기쁨과 언약적인 슬픔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신약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시대를 두고 말씀하셨다. 정말 기뻐해야 할 때는 기뻐하지 않고 정말 슬퍼해야 할 때는 슬퍼하지 않는 시대라고 했다.

(1) 다윗은 정말 슬퍼해야 할 것을 알았다. 언약계가 방치되어 있고 백성들이 복음을 놓친 것이 다윗의 마음에 진정한 한(恨)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다. 언약계를 모시고 들어오는 것을 기뻐할 때, 왕으로서의 체면도 가식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춤추고 뛰놀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 미갈은 다윗이 왜 기뻐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사울왕의 딸이니까 공주 출신이고, 다윗은 목동 출신이지 않나? 임금이 체통이 없다, 임금답지 않다고 한심하게 봤다. 영적인 것을 못 봤기 때문이다.

(3) 어떤 결과가 왔나? 다윗을 업신여긴 미갈은 저주를 받아서 다시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언약계를 기뻐하고 언약계를 모실 주의 성전을 짓기 위해 한을 품고 기도했던 다윗은 영원한 축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김용락 장로님처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안수집사님, 그 성도를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 모두에게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한다. 언약계는 복음을 말한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말씀을 말한다. 이것이 담기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선포되는 곳이 성전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다가, 자신과 후대가 영원한 축복을 받는 그런 주간, 그런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축원한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다윗처럼 사랑하고, 주의 언약의 말씀을, 복음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후대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계를 마음에 모셨던 다윗처럼, 우리 참사랑 가족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도 꼭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계를 둘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처럼, 주 앞에서 하루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사는 천 날보다 행복하다고 했던 그들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도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전을 중심으로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이 지역의 문화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사신(邪神), 우상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주민들의 마음 속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램넛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서밋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자녀들의 산업과 직장을 축복하사,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 되심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들의 산업을 보니,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맞다'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보니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말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